

레위기 4장 13-21절 말씀

13 만일 **이스라엘 온 회중**이
여호와와 **계명** 중 하나라도
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
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

회중은 **수송아지**를 **속죄제**로 드릴지니

-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
- 15 **회중의 장로들**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
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
- 16 **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**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
- 17 그 **제사장**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
여호와 앞,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
- 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<제단> 뿔들에 바르고
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
- 19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
제단 위에서 불사르되
- 20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
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
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
- 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
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불사르지니
이는 **회중의 속죄제**니라